

'AI·디지털 배움터' 맞춤형 교육 가동

고양시, AI캠퍼스에 체험존... 연말까지 무료교육

복지관·경로당등 찾아가는 '에듀버스' 확대 운영

경기 고양시는 시민의 디지털·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2026 AI·디지털 배움터 사업' 운영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AI·디지털 배움터 사업은 인공지능(AI) 기술 변화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민 수준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경기북부 AI캠퍼스(창조혁신센터 상사 16층)에 '디지털 배움터 체험존'을 개설했으며, 오는 12월까지 교육이 진행 된다. 체험존에서는 키오스크 사용법, 가상현실(VR)기기, 드론, 인공지능

로봇 체험이 가능하다.

아울러 체험존에 강의장에서는 스마트폰 기초, 소프트웨어, 온라인 소강 등을 비롯해 최신 트렌드인 생성형 AI 활용법을 다루는 교육이 이어진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양시민 누구나 전 과정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 12월까지 다양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으로,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교육과정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민선 9기 주요 과제 '디지털 배움터 확대'에 맞춰 찾아가는 AI·디지털 교육을 추진한다.

시는 전문 강사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주된 삼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과정교육과 축제·행사 현장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전문 교육 자원을 파견하는 '에듀버스'를 확대 운영해 시민들의 디지털 교육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정홍 기자 mjh@sminilbo.co.kr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 협약

서울 양천구가 지난 29일 오후 구청 5층 회의실에서 친구와 서울대교구 제8양천지구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은 협약식에서 이기재 구청장(가운데)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양천구, '돌봄SOS사업' 서비스 기반 확충

일시제자·동행지원등 신규 제공기관 7곳 모집

완료된 재협약기관 27곳 포함 34곳으로 확대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지역내 돌봄이 필요한 구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돌봄SOS사업'을 함께 수행할 신규 제공기관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이번 신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

자기관 등 지역내 기관을 추가로 발굴하고, 서비스 분야별 제공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7월30일부터 8월14일까지이다. 모집 분야는 ▲일시제자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지원 ▲식식배달 등 5개 분야로 총 7개의 기관을 신규 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제출서류를 구비해 양천구청 통합돌봄과(해누리타운 8층)를 방문하여 전자서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와 재협약 등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능력, 안전 관리 체계, 서비스 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8월25일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개별 통보한다.

신청된 기관은 8월31일 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9월1일부터 1년간 돌봄SOS사업 제공기관으로 활동한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돌봄 사각지에 거주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해 지역 돌봄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신규 모집이 완료되면 구의 돌봄SOS 제공기관은 재협약 기관 27곳을 포함해 총 34곳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3곳 늘어난 규모로 각각 수 대비 돌봄 수요를 반영해 ▲단기시설 ▲주거지원 ▲식식배달 분야의 제공기관을 각각 1곳씩 추가했다.

박소진 기자 zini@sminilbo.co.kr

인천 계양구, 곳곳서 '초등생 틈새돌봄'

방학기간 돌봄공백 해소 온힘

지역아동센터 15곳 연장 운영

인천 계양구는 여름방학 기간 중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해 '초등방학 틈새돌봄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학이 가장 두 달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내 지역아동센터 15곳에서 운영된다. 기존 여름 방학뿐 아니라 방학 기간에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도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방학 기간 동안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점심과 저녁 급식을 제공해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방학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방학을 보낼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방학 후 구청장은 "여름방학은 방학이 가장 두 달 중 돌봄 부담이 특히 커지는 시기"라며 "이번 틈새돌봄사업이 학부주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전한暑假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윤한진 기자 mcs@sminilbo.co.kr

간추린 뉴스



제17기 강서품동산 어린이가자단이 단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강서구, 어린이가자단 '한강 르네상스호' 견학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최근 '강서품동산 어린이가자단' 47명과 함께 현장 취재를 위한 단체 견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자단은 여의도 관공성 전시장에서 '한강 르네상스호' 선박 내부를 탐험해 둘러본 뒤, 여의도·마곡·여의도 구간을 운항하며 현장 체험에 나섰다.

견학 프로그램은 한강 전문 해설사와 안내로 한강의 역사와 문화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자단은 운항 중 난지도 공원, 공산, 소아마루 등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취재에 집중했으며, 선상에서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기사 아이디어를 구상하기도 했다.

이번 견학은 'RAS 경기 문제해 교육'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자기표현과 심리·정서 지원, 교원의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이어 올해는 교원 250명을 대상 기차 과정(8·18일), 심화 과정(27·30일)으로 운영했다.

교육청은 학교교육과정과 학습 연수 협의체가 기초과정을, 심화 과정은 가천대 및 예술치료학과와 협력해 교육과정을 반영한 음악·미술 중심 연수로 개발했다.

연수는 과정별 초·중등 미술·음악 등 4개 분야이며, 연수 과정은 일대일 개인교과와 유무선 이화하며 교사가 참여해 음악·미술 교과와 예술 치료를 연계한 전문 강의로 구성됐다.

기차 과정은 ▲정서행동 그림검사(EBOT) 이해 ▲교사 소진 예방 전략 ▲내면 탐색 미술 수업 ▲미술관 전시 감상과 워크숍 ▲사회정서교육과 음악 활용 ▲자기 인식·표현을 위한 음악 수업 ▲힐링 공연 등 학습·체험 중심으로 운영됐다.

수습=한민정 기자 him@sminilbo.co.kr

임도경 내발산초 기자는 "해설사의 상세한 설명 덕분에 한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됐고, 집에 돌아와서 비로 기사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북초 최현아 기자 역시 "한강에서 배를 타는 경험에 처음이라 아주 뜻깊었고, 꼭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소진 기자 zini@sminilbo.co.kr

경기도교육청, 예술 심리·정서 선도교원 연수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8~30일 한양대학교 예과 캠퍼스와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사업에 안내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는 등 읍면기관의 접근성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치매안심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치매예방사업은 ▲단체와 치매안심가맹점은 치매안심교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에 동참하는 기관과 사업장이다.

민정홍 기자 mjh@sminilbo.co.kr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임원진 간담회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가 최근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공생체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동민 구청장을 비롯해 김영삼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부위원장 및 이사진 등이 참석해 취업·학업·인간의 함께 양육 동대문구 복지 발전을 위한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 구청장은 "주민의 사회복지 증진,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이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라며, "앞으로 임기 동안 협의회 임원진 분들과 자주 소통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선포 손을 내밀어 주시는 큰 마음에 응호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내 복지 사각지에 해소와 주민 체감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대우 기자 nice@sminilbo.co.kr

용산구, 조형물세포이식 환자 국가예방접종 확대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래)는 조형물세포이식 환자의 면역력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식 후 국가예방접종을 지원 대상으로, 현재 12세 이하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2026년 조형물세포이식 받은 신규 환자는 연령 제한 없이 이식일로부터 최대 3년간 예방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15세 감염병을 예방하는 17종으로,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인플루엔자 등이 포함된다. 다만 HPV 백신은 허가사항에 따라 남녀 모두 26세까지만 지원된다.

접종은 백신 종류에 따라 이식 후 최대 3개월 또는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다만 환자의 신체와 개인별 면역 상황에 따라 접종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

민정홍 기자 mjh@sminilbo.co.kr

문민호 기자 mmh@sminilbo.co.kr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노량진에 새동지

동작구, 확장 이전... 내달 개소

교육실·심리 안정실 신규 조성

AI 디지털 교육용 특화프로도

서울 동작구(구청장 류성열)는 장애인 가족의 복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노량진으로 확장 이전한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 10월 개관한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그동안 장애인 가족 전문 상담, 긴급돌봄, 부모 교육 및 자조 모임 지원 등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존 센터(보라매로5가길 16)는 구 오래된 위치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간이 협소해 늘어난 복지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센터를 노량진역세권 원문로 16 내 기부채납 공간으로 이전 조성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이전을 통해 시설 면적을 기존 38평에서 57평으로 약 19평 늘리는 한편, 일차로 2억 4천 374만원의 예산까지 할당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확장된 공간에는 기존 교육실과 상담실, 사무실 외에 교육실 1곳과 심리 안정실 1곳이 신규 조성된다. 구는 추가 조성하는 공간을 활용

해 AI 디지털 교육 등 시의성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보호자 후속 지원과 긴급 돌봄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새동지 단장인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오는 8월 말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류성열 구청장은 "이번 장애인 가족센터 이전은 단순한 위치 이동이 넘어, 실질적인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까지 이뤄낸 성과"라며, "재능기부 마련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장애인 가족 모두가 일상 속 따뜻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yyy@sminilbo.co.kr

65세 미만 취약계층 치과 치료비 지원

군포시-경기 사랑의열매 맞손

'열매 네트워크' 복지사업 추진

경기 군포시는 지난 29일 경기 사랑의열매로부터 지역사회와 맞닿은 복지사업인 '열매 네트워크' 추진을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군포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한대희 군포시장과 권인옥 경기 사랑의열매 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열매 네트워크'는 민·관이 유

기적으로 협력해 지역내 복지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시는 이번엔 확보한 사업비로 ▲임상 속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QR코드 보급 ▲저소득층 치과 치료비 지원 ▲취약계층 아동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기존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65세 미만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해 치과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치아 손실로 영양 불균형과 삶의 질 저하를

겪는 취약계층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한대희 시장은 "민관 협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기부문화 활성화의 중요한 열쇠"라며 "치과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관인옥 경기 사랑의열매 회장은 "민간의 지속적인 협력에 시민들의 참여가 더해질 때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군포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눔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복지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화답했다.

군포=송윤기 기자 ygs@sminilbo.co.kr

'찾아가는 장난감병원'洞 순회 운영

은평구, 8~11월 매월 4회씩

전지역 원인 고장 무료 수리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경미)가 8~11월 지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고장 난 장난감을 무료로 수리해 주는 '찾아가는 장난감병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장난감병원'은 매월 4회씩 각 동을 순회하며 무료로 운영해 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장난감 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거나 소리가 나지 않는 등 전기적 원인으로 고장 난 장난감을 수리하며, 이용자는 원할한 점검과 수리를 위해 사전견진 예약을 방문해야 한다. 다만 파손된 장난감은 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장으로 접수하며, 17구당 2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대우 기자 nice@sminilbo.co.kr

우울 고위험군 '마음돌봄 프로'

홍성군, 하반기 참여자 모집

충남 홍성군보건소는 우울 고위험군의 정신건강 회복과 자살 예방을 위해 '2026년 우울 고위험군 심층관리 마음돌봄 프로그램'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울증 등 특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상담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홍성군 특화사업으로, 우울감 완화와 건

강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오는 8월7일부터 10월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총 8회에 걸쳐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실에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우울척도 및 자살위험성 검사(PHQ-9, P4) ▲원예치료 ▲공명명상 ▲아로마테라피 ▲홍성전 산책 ▲가게에서 마를 나누기 등 다양한 체험형 활동으로 구성됐다.

홍성=최복경 기자 cbg@sminilbo.co.kr

청년인재상 후보자 추천 공모

안산시, 3~14일 5개분야 접수

경기 안산시는 지역사와 각 분야에서 심심한 노력과 뛰어난 성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우수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8월30일 14일까지 '제2회 안산시 청년인재상' 후보자를 추천받겠다고 30일 밝혔다.

'안산시 청년인재상'은 지역사와 발전과 청년정책 활성화를 공헌한 청년을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다.

올해는 ▲일자리·산업 ▲창업·벤처 ▲문화·예술·체육 ▲주거·복지 ▲교육 등 5개 분야에서 총 7명 이내를 선정할 계획이다.

추천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이다. 각 분야에서 심심한 자재와 뛰어난 성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청년인재 추천할 수 있다.

추천서와 공적 조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안산시 청년정책관에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서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산=송윤기 기자 ygs@sminilbo.co.kr